

2) 신증후군 환자 14예에 대한 HBsAg의 양성은 7예(50%)이었고, anti-HBs는 5예(35.7%)에서 양성이었다. 그중에서 특발성 신증후군 11예에 대한 빈도는 HBsAg양성이 4예(36.4%), anti-HBs양성 5예(45.5%), HBsAg과 anti-HBs 전부 양성인예가 2예(18.2%)로 나타났으며 만성간질환에 합병된 신증후군 3예에서는 전예가 HBsAg 양성이었다고, anti-HBs는 전부 음성이었다. 따라서 신증후군 환자에서는 정상인에서보다 훨씬 높은 양성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신증후군에 대한 면역학적 결핍으로 인한 HBsAg 감염에 의한 것인지 또는 HBsAg-Ab complex deposition으로 인한 이차적 신증후군인지는 앞으로 규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기타 질환군 11예중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1예에서만 HBsAg이 양성이었으며 Anti-HBs 양성은 8예로서 과거에 HBsAg의 감염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8. 교질형방사성검을 사용한 간주사상의 비장섭취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부속 세브란스병원 방사선과

이영호 · 김귀언 · 박창윤

인체의 비장은 신티레이온 스캐닝에서 선택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교질형방사성검을 사용한 간주사상에서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교질형방사성검을 사용한 간주사상에서 비장섭취가 나타나는 이러한 경우, 비장섭취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으며, 더우기 이런 비장섭취의 정도가 간주사상의 판독에 있어서 보조적 도움이 되어 왔었다.

물론, Goswitz는 정상에서도 비장섭취가 나타나는 것이 5%라고 보고하였으나, Christie등은 간경변증에서는 비장섭취가 간기능저하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 한 바 있으며, 그의 비장자체의 질환, 혈액학적 병변 또한 비장섭취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여러 저자들에 의해 시사된 바 있다.

이에 저자들은 교질형방사성검을 사용한 간주사상에서 비장섭취가 보여질때, 어떤 병변들이 나타났으며, 또 어느 병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나를 조사하여 보았다.

1972년부터 1977년까지 본 병원 방사선과 동위원소

실에서 교질형방사성검을 사용하여 실시한 간주사상중, 비장섭취가 나타난 총 백오십예의 간주사상을 대상으로 입상기록을 조사하여 병리 및 수술에 의해 확진이 된 예를 중심으로 고찰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가 관찰되었다.

병리 및 수술에 의해 확진이 된 총 이십칠예 중에서 간경변증이 십사예로 오십이 퍼센트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간염, 간농양, 그리고 간암의 간경변증을 제외한 만성간질환들이 각각 3예로 십일 퍼센트씩을 나타냈으며, 그 외에 악성 임파종과 담낭염을 동반한 담석 및 담도 결석증이 각각 2예와 1예로 관찰되었다.

저자들은, 교질형방사성검을 사용한 간주사상에서 비장섭취가 보여지는 것을 관찰한 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19. 간 농양에서의 간주사

(Liver Scan in the Hepatic Abscess)

鄭俊基 · 金明德 · 洪基燾 · 金柄國 · 高昌舜

간농양은 일반적인 임상증상이나 이학적 소견, 방사선 검사, 검사실적 소견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려운 질환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肝走査法에 의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특히 肝走査法の 안정도 및 검사의 신속성이 간농양의 조기진단 요구와 일치된다.

演者들은 1971년 3월부터 1977년 9월까지 서울대 학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간농양 환자에서 肝走査의 진단적 의의와 임상과의 관계를 보았다.

肝走査는 ^{198}Au 0.2~0.3 μCi 혹은 $^{99\text{m}}\text{Tc}$ 0.1 mCi 靜注後 scintillation camera로 시행하였다.

농이 chocolate color 내지 anchovy paste樣을 띄는 예는 아메바성 간농양으로 분류했고 이런 예에서 배양상 아메바 균이 검출되거나 혹은 chocolate color pus와 전형적인 화농성 농이 나오는 경우는 혼합성으로 분류했다. 농이 황색 내지 황녹색인 경우에는 Gram염색 및 농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화농성으로 분류하였다.

간농양 진단이 내렸던 87명의 환자중 수술이나 천자에 의해 농이 확인된 44예를 고찰하였다.

1) 총 44예중 아메바성 간농양이 19예였고, 화농성 간농양이 18예, 혼합성이 7예 이었다.

2) 연령 및 성별분포는 30대(34%), 40대(30%)가 제일 많았고, 남자가 34예, 여자가 10예이었다.